

## 3. 전라남도 항목

---

- 3-1 결혼에 대한 견해
- 3-2 자녀에 대한 견해
- 3-3 자녀 양육을 위해 지원해야 할 정책
- 3-4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
- 3-5 저출산의 주요 원인
- 3-6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정책
- 3-7 월평균 가구 소비
- 3-8 부담되는 생활비 항목(가구주, 1순위 응답)
- 3-9 청년지원정책
- 3-10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대한 인식
- 3-11 외국인 노동자 적응을 위한 지원 정책
- 3-12 집 주변에 빈 집의 수와 방치 정도
- 3-13 빈 집의 활용방안
- 3-14 귀농어, 귀촌을 하는 가장 큰 이유
- 3-15 귀농어, 귀촌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
- 3-16 쓰레기 처리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 생활폐기물
- 3-17 쓰레기 처리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 음식물쓰레기
- 3-18 쓰레기 처리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 재활용쓰레기
- 3-19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 3-20 선호하는 노후 동거형태
- 3-21 요양서비스 선호 장소
- 3-22 여가활동 -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복수응답)
- 3-23 여가활동 -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복수응답)
- 3-24 안전한 지역만들기 위한 방안
- 3-25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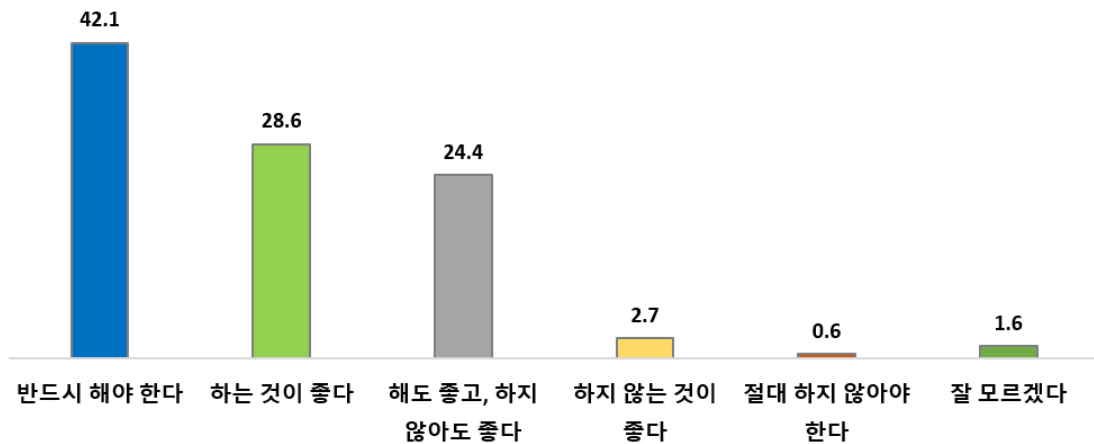


### 3-1 결혼에 대한 견해

#### 결혼에 대한 견해 「긍정적」

- 결혼에 대한 견해로 「반드시 해야 한다」 응답이 42.1%로 가장 많고, 「하는 것이 좋다」(28.6%),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24.4%) 순으로 나타남.
- 「부정적」(3.3%) 응답보다 「긍정적」(70.6%)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적」 응답이 가장 많고, 「긍정적」 응답은 서남부권(75.0%), 북부권(72.1%), 중부권(65.3%) 순으로 나타남.
- 남자(70.7%)와 여자(70.5%) 모두 「긍정적」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15~29세와 30대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응답이 가장 많고, 다른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긍정적」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혼인상태별로 미혼 응답자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54.1%) 응답이 가장 많음. 배우자 있음(79.4%), 사별/이혼(75.5%) 모두 「긍정적」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결혼에 대한 견해



[표 3-1] 결혼에 대한 견해

(단위: %)

| 구분      | 계     | 반드시 해야 한다 | 하는 것이 좋다 |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 잘 모르겠다 |
|---------|-------|-----------|----------|------------------|-------------|--------------|--------|
| 2022년   | 100.0 | 47.7      | 28.3     | 17.5             | 1.4         | 0.2          | 5.0    |
| 2024년   | 100.0 | 42.1      | 28.6     | 24.4             | 2.7         | 0.6          | 1.6    |
| < 지역별 > |       |           |          |                  |             |              |        |
| 중부권     | 100.0 | 40.2      | 25.2     | 28.4             | 1.7         | 1.4          | 3.2    |
| 북부권     | 100.0 | 39.8      | 32.3     | 19.4             | 7.4         | 0.0          | 1.1    |
| 서남부권    | 100.0 | 45.5      | 29.5     | 23.8             | 0.6         | 0.2          | 0.4    |
| < 성별 >  |       |           |          |                  |             |              |        |
| 남자      | 100.0 | 39.1      | 31.6     | 23.7             | 3.0         | 0.6          | 1.9    |
| 여자      | 100.0 | 45.5      | 25.0     | 25.3             | 2.3         | 0.5          | 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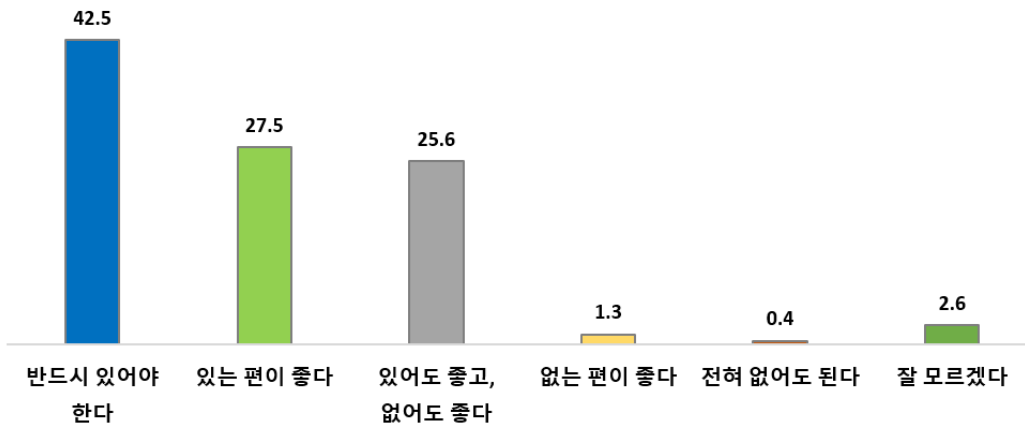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 3-2 자녀에 대한 견해

#### 자녀에 대한 견해 「긍정적」

- 자녀에 대한 견해로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응답이 42.5%로 가장 많고, 「있는 편이 좋다」(27.5%),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25.6%) 순으로 나타남.
- 「부정적」(1.7%) 응답보다 「긍정적」(70.1%)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적」 응답이 가장 많고, 「긍정적」 응답은 서남부권(76.0%), 북부권(69.0%), 중부권(65.0%) 순으로 나타남.
- 남자(69.6%)와 여자(70.7%) 모두 「긍정적」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15~29세와 30대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응답이 가장 많고, 다른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긍정적」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혼인상태별로 미혼 응답자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55.4%) 응답이 가장 많음. 배우자 있음(78.6%), 사별/이혼(75.6%) 모두 「긍정적」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자녀에 대한 견해



[표 3-2] 자녀에 대한 견해

(단위: %)

| 구분                   | 계     | 반드시 있어야 한다 | 있는 편이 좋다 |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 없는 편이 좋다 | 전혀 없어도 된다 | 잘 모르겠다 |
|----------------------|-------|------------|----------|----------------|----------|-----------|--------|
| 2022년                | 100.0 | 47.2       | 31.5     | 15.4           | 0.7      | 0.4       | 4.9    |
| 2024년                | 100.0 | 42.5       | 27.5     | 25.6           | 1.3      | 0.4       | 2.6    |
| <b>&lt; 지역별 &gt;</b> |       |            |          |                |          |           |        |
| 중부권                  | 100.0 | 42.5       | 22.5     | 30.3           | 0.0      | 0.7       | 4.0    |
| 북부권                  | 100.0 | 39.5       | 29.4     | 22.8           | 4.4      | 0.0       | 3.8    |
| 서남부권                 | 100.0 | 44.6       | 31.4     | 22.7           | 0.6      | 0.5       | 0.3    |
| <b>&lt; 성별 &gt;</b>  |       |            |          |                |          |           |        |
| 남자                   | 100.0 | 40.0       | 29.6     | 25.4           | 1.7      | 0.8       | 2.6    |
| 여자                   | 100.0 | 45.5       | 25.1     | 25.8           | 0.8      | 0.0       | 2.7    |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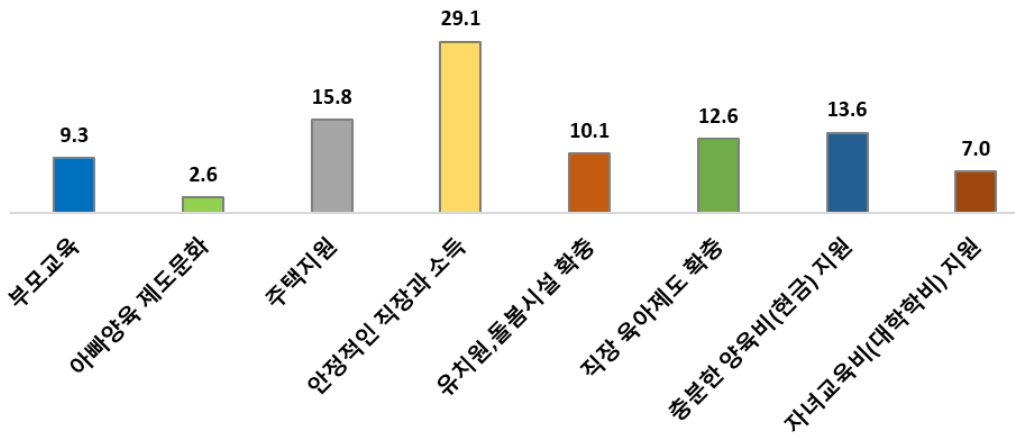
### 3-3 자녀 양육을 위해 지원해야 할 정책

#### 「안정적인 직장 소득」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 「안정적인 직장 소득」 응답이 29.1%로 가장 많고, 「주택지원」(15.8%), 「충분한 양육비(현금)지원」(13.6%) 순으로 나타남.

- 2022년(34.4%)과 2024년(29.1%) 모두 「안정적인 직장 소득」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안정적인 직장 소득」 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35.0%), 서남부권(30.5%), 중부권(23.1%) 순으로 나타남.
- 남자(29.2%)와 여자(29.0%) 모두 「안정적인 직장 소득」 응답이 가장 많음.
- 연령별로 15~29세는 「충분한 양육비 지원」 응답이 가장 많고, 나머지 연령대는 「안정적인 직장 소득」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자녀 양육을 위해 지원해야 할 정책



[표 3-3] 자녀 양육을 위해 지원해야 할 정책

(단위: %)

| 구분       | 계     | 부모교육 | 아빠양육 제도문화 | 주택지원 | 안정적인 직장 소득 | 유치원, 돌봄시설 확충 | 직장 육아제도 확충 | 충분한 양육비(현금) 지원 | 자녀 교육비(대학학비) 지원 |
|----------|-------|------|-----------|------|------------|--------------|------------|----------------|-----------------|
| 2022년    | 100.0 | 7.4  | 1.8       | 17.5 | 34.4       | 9.8          | 5.4        | 18.8           | 4.8             |
| 2024년    | 100.0 | 9.3  | 2.6       | 15.8 | 29.1       | 10.1         | 12.6       | 13.6           | 7.0             |
| < 지역 별 > |       |      |           |      |            |              |            |                |                 |
| 중부권      | 100.0 | 19.2 | 4.0       | 18.9 | 23.1       | 7.9          | 11.1       | 10.9           | 5.0             |
| 북부권      | 100.0 | 1.3  | 1.5       | 13.5 | 35.0       | 9.9          | 14.9       | 12.7           | 11.2            |
| 서남부권     | 100.0 | 5.6  | 1.9       | 14.2 | 30.5       | 12.3         | 12.4       | 16.9           | 6.2             |
| < 성 별 >  |       |      |           |      |            |              |            |                |                 |
| 남자       | 100.0 | 9.5  | 2.1       | 15.7 | 29.2       | 10.8         | 11.7       | 13.8           | 7.3             |
| 여자       | 100.0 | 9.1  | 3.2       | 15.8 | 29.0       | 9.3          | 13.6       | 13.4           | 6.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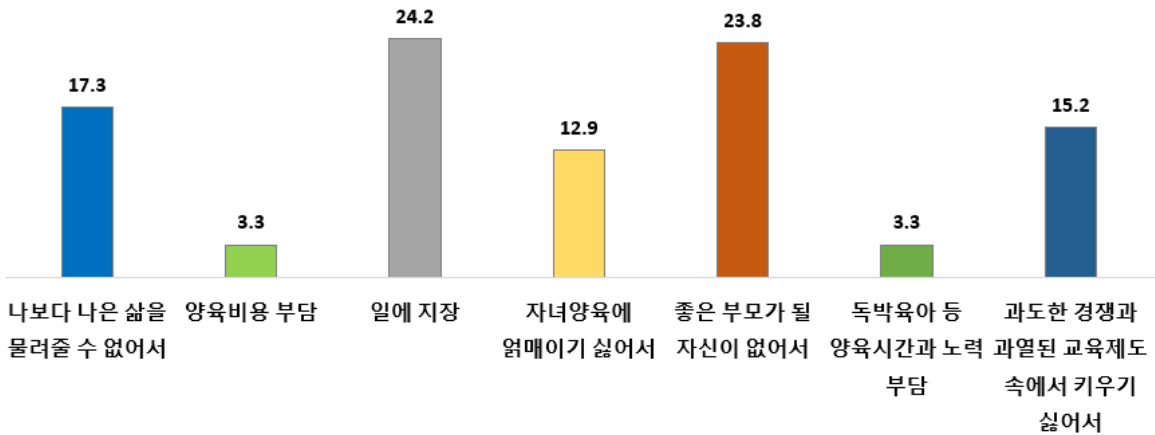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 3-4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

#### 「일에 지장(일가정양립 어려운 가정사회구조)」

-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일에 지장(일가정양립 어려운 가정사회 구조)」 응답이 24.2%로 가장 많고,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23.8%), 「나보다 나은 삶을 물려줄 수 없어서」(17.3%) 순으로 나타남.
- 2022년에는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36.8%)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지역별로 중부권은 「나보다 나은 삶을 물려줄 수 없어서」(68.7%) 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은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34.3%) 응답이 가장 많음. 서남부권은 「일에 지장」(60.0%) 순으로 나타남.
- 남자는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31.1%) 응답이 가장 많고, 여자는 「과도한 경쟁과 과열된 교육제도 속에서 키우기 싫어서」(46.1%)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



[표 3-4]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

(단위: %)

| 구분       | 계     | 나보다 나은 삶을 물려줄 수 없어서 | 양육비용 부담 | 일에 지장 | 자녀양육에 얽매이기 싫어서 |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 | 독박육아 등 양육시간과 노력 부담 | 과도한 경쟁과 과열된 교육제도 속에서 키우기 싫어서 |
|----------|-------|---------------------|---------|-------|----------------|------------------|--------------------|------------------------------|
| 2022년    | 100.0 | 15.9                | 29.2    | 0.0   | 4.2            | 36.8             | 0.0                | 13.9                         |
| 2024년    | 100.0 | 17.3                | 3.3     | 24.2  | 12.9           | 23.8             | 3.3                | 15.2                         |
| < 지역 별 > |       |                     |         |       |                |                  |                    |                              |
| 중부권      | 100.0 | 68.7                | 0.0     | 31.3  | 0.0            | 0.0              | 0.0                | 0.0                          |
| 북부권      | 100.0 | 4.8                 | 4.8     | 13.4  | 18.6           | 34.3             | 4.8                | 19.3                         |
| 서남부권     | 100.0 | 30.0                | 0.0     | 60.0  | 0.0            | 0.0              | 0.0                | 10.0                         |
| < 성 별 >  |       |                     |         |       |                |                  |                    |                              |
| 남자       | 100.0 | 20.2                | 4.3     | 29.3  | 5.1            | 31.1             | 4.3                | 5.7                          |
| 여자       | 100.0 | 7.8                 | 0.0     | 7.8   | 38.3           | 0.0              | 0.0                | 46.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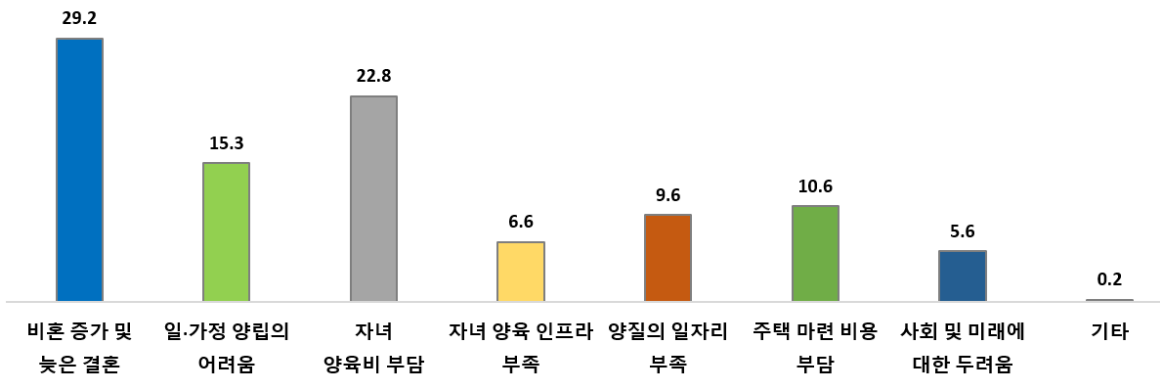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 3-5 저출산의 주요 원인

#### 「비혼 증가 및 늦은 결혼」

-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비혼 증가 및 늦은 결혼」(29.2%) 응답이 가장 많고, 「자녀 양육비 부담」(22.8%),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15.3%) 순으로 나타남.
- 2022년에는 「자녀 양육비 부담」(26.4%)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비혼 증가 및 늦은 결혼」 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34.1%), 서남부권(28.2%), 중부권(27.0%) 순으로 나타남.
- 남자(28.9%)와 여자(29.6%) 모두 「비혼 증가 및 늦은 결혼」 응답이 가장 많음.
- 연령별로 15~29세는 「자녀 양육비 부담」 응답이 가장 많고, 다른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비혼 증가 및 늦은 결혼」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저출산의 주요 원인



[표 3-5] 저출산의 주요 원인

(단위: %)

| 구분      | 계     | 비혼 증가 및 늦은 결혼 |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 자녀 양육비 부담 | 자녀 양육 인프라 부족 | 양질의 일자리 부족 | 주택 마련 비용 부담 | 사회 및 미래에 대한 두려움 | 기타  |
|---------|-------|---------------|--------------|-----------|--------------|------------|-------------|-----------------|-----|
| 2022년   | 100.0 | 26.3          | 12.9         | 26.4      | 6.5          | 10.7       | 11.5        | 5.5             | 0.1 |
| 2024년   | 100.0 | 29.2          | 15.3         | 22.8      | 6.6          | 9.6        | 10.6        | 5.6             | 0.2 |
| < 지역별 > |       |               |              |           |              |            |             |                 |     |
| 중부권     | 100.0 | 27.0          | 17.7         | 17.7      | 9.9          | 9.5        | 11.8        | 6.0             | 0.6 |
| 북부권     | 100.0 | 34.1          | 11.3         | 25.9      | 3.0          | 11.5       | 10.5        | 3.8             | 0.0 |
| 서남부권    | 100.0 | 28.2          | 15.7         | 25.9      | 5.7          | 8.4        | 9.5         | 6.5             | 0.0 |
| < 성별 >  |       |               |              |           |              |            |             |                 |     |
| 남자      | 100.0 | 28.9          | 15.1         | 22.1      | 6.0          | 10.4       | 10.9        | 6.5             | 0.1 |
| 여자      | 100.0 | 29.6          | 15.7         | 23.6      | 7.3          | 8.7        | 10.2        | 4.6             | 0.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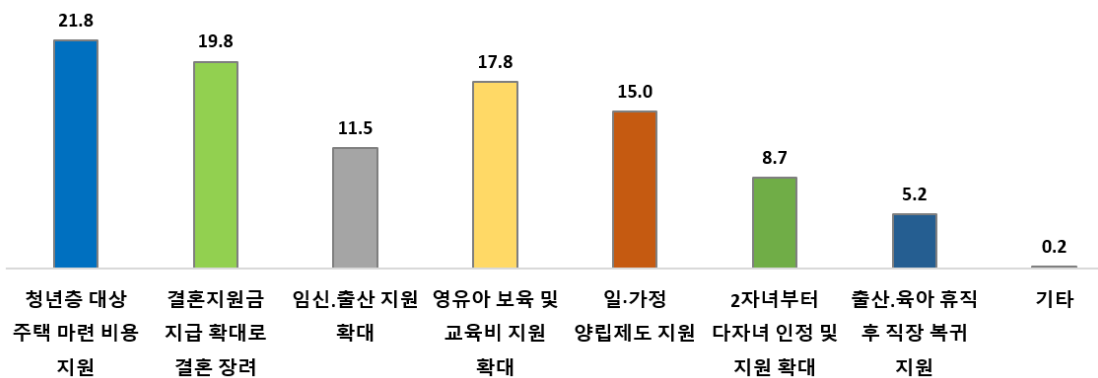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 3-6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정책

#### 「청년층 대상 주택 마련 비용 지원」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와 군에서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 「청년층 대상 주택 마련 비용 지원」(21.8%) 응답이 가장 많고, 「결혼지원금 지급 확대로 결혼 장려」(19.8%),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 지원 확대」(17.8%) 순으로 나타남.
- 2022년(23.1%)과 2024년(21.8%) 모두 「청년층 대상 주택 마련 비용 지원」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 중부권(21.5%)과 서남부권(22.3%)은 「청년층 대상 주택 마련 비용 지원」 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은 「결혼지원금 지급 확대로 결혼 장려」(24.2%)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남자(22.5%)와 여자(21.0%) 모두 「청년층 대상 주택 마련 비용 지원」 응답이 가장 많음.
- 연령별로 30대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 지원 확대」 응답이 가장 많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청년층 대상 주택 마련 비용 지원」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정책



[표 3-6]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정책

(단위: %)

| 구분      | 계     | 청년층 대상 주택 마련 비용 지원 | 결혼 지원금 지급 확대로 결혼 장려 | 임신·출산 지원 확대 |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 지원 확대 | 일·가정 양립제도 지원 | 2자녀부터 다자녀 인정 및 지원 확대 | 출산·육아 휴직 후 직장 복귀 지원 | 기타  |
|---------|-------|--------------------|---------------------|-------------|--------------------|--------------|----------------------|---------------------|-----|
| 2022년   | 100.0 | 23.1               | 19.9                | 12.8        | 19.7               | 14.2         | 6.7                  | 3.5                 | 0.1 |
| 2024년   | 100.0 | 21.8               | 19.8                | 11.5        | 17.8               | 15.0         | 8.7                  | 5.2                 | 0.2 |
| < 지역별 > |       |                    |                     |             |                    |              |                      |                     |     |
| 중부권     | 100.0 | 21.5               | 19.3                | 11.1        | 15.6               | 15.7         | 8.5                  | 7.6                 | 0.6 |
| 북부권     | 100.0 | 21.4               | 24.2                | 9.6         | 20.4               | 9.8          | 10.9                 | 3.7                 | 0.0 |
| 서남부권    | 100.0 | 22.3               | 17.2                | 13.2        | 18.4               | 17.8         | 7.4                  | 3.7                 | 0.0 |
| < 성별 >  |       |                    |                     |             |                    |              |                      |                     |     |
| 남자      | 100.0 | 22.5               | 19.6                | 10.8        | 17.6               | 14.8         | 8.5                  | 6.0                 | 0.1 |
| 여자      | 100.0 | 21.0               | 19.9                | 12.2        | 18.1               | 15.3         | 8.9                  | 4.3                 | 0.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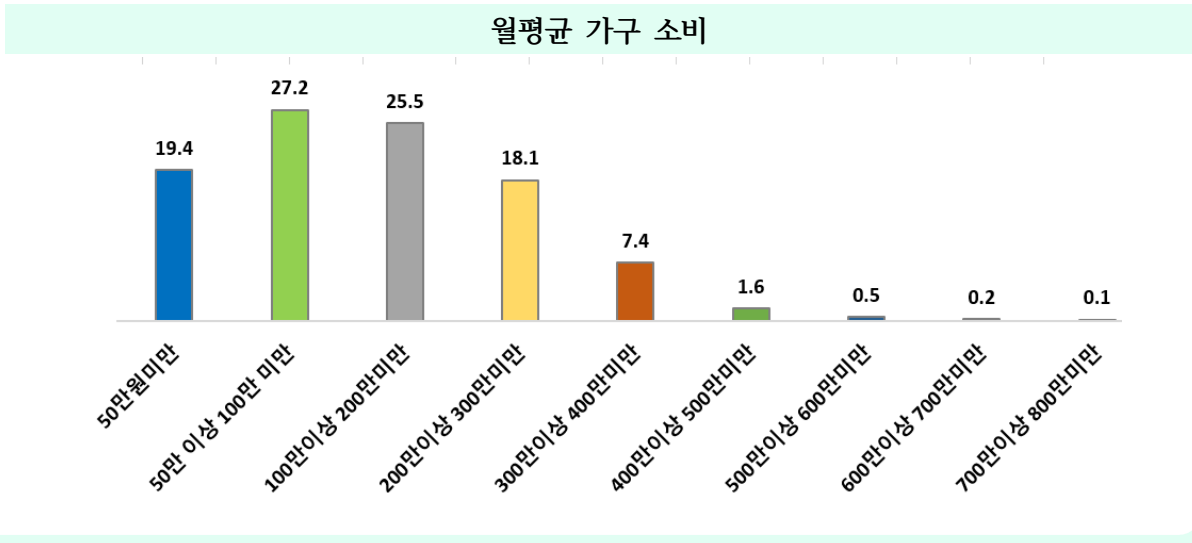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 3-7 월평균 가구 소비

#### 월 평균 가구 소비 「50만원~100만원」이 가장 많아

- 월 평균 가구 소비는 「50만원~100만원」이 27.2%로 가장 많고, 「100~200만원」(25.5%), 「200만원~300만원」(19.4%) 순으로 나타남.
- 가구 소비 평균은 2022년도 187.6만원에서 2024년도 149.7만원으로 37.9만원 감소함.
- 지역별로 가구 소비 평균은 서남부권(159.5만원), 북부권(152.9만원), 중부권(136.3만원) 순이며,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차이는 23.1만원으로 조사됨.
- 성별로 남자 소비 평균은 174.4만원이며, 여자는 83.0만원으로 91.4만원 차이임.
- 소비의 평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222.0만원), 가장 낮은 연령대는 70세 이상(88.5만원)이며, 두 연령대 간 차이는 133.4만원으로 나타남.
-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가구 소비 평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표 3-7] 월평균 가구 소비

(단위: %)

| 구분                   | 계     | 50만원 미만 | 50만 이상 100만 미만 | 100만 이상 200만 미만 | 200만 이상 300만 미만 | 300만 이상 400만 미만 | 400만 이상 500만 미만 | 500만 이상 600만 미만 | 600만 이상 700만 미만 | 700만 이상 800만 미만 | 800만 원 이상 | 평균 (만원) |
|----------------------|-------|---------|----------------|-----------------|-----------------|-----------------|-----------------|-----------------|-----------------|-----------------|-----------|---------|
| 2017년                | 100.0 | 28.3    | 31.3           | 23.0            | 11.8            | 4.2             | 1.5             | 152.3           |                 |                 | 152.3     |         |
| 2018년                | 100.0 | 25.7    | 23.2           | 26.2            | 16.3            | 4.7             | 1.6             | 0.8             | 0.8             | 0.1             | 0.4       | 145.5   |
| 2019년                | 100.0 | 19.1    | 24.9           | 30.2            | 13.6            | 8.0             | 2.5             | 0.6             | 0.3             | 0.1             | 0.7       | 157.2   |
| 2020년                | 100.0 | 9.5     | 24.4           | 27.2            | 18.0            | 10.4            | 3.1             | 1.3             | 3.0             | 1.8             | 1.4       | 210.1   |
| 2022년                | 100.0 | 16.1    | 24.1           | 25.2            | 16.0            | 8.6             | 5.2             | 2.7             | 1.1             | 0.7             | 0.7       | 187.6   |
| 2024년                | 100.0 | 19.4    | 27.2           | 25.5            | 18.1            | 7.4             | 1.6             | 0.5             | 0.2             | 0.1             | 0.0       | 149.7   |
| <b>&lt; 지역별 &gt;</b> |       |         |                |                 |                 |                 |                 |                 |                 |                 |           |         |
| 중부권                  | 100.0 | 23.9    | 27.7           | 25.0            | 15.7            | 6.5             | 0.0             | 0.5             | 0.5             | 0.0             | 0.0       | 136.3   |
| 북부권                  | 100.0 | 23.6    | 22.2           | 25.0            | 16.8            | 9.1             | 2.5             | 0.8             | 0.0             | 0.0             | 0.0       | 152.9   |
| 서남부권                 | 100.0 | 13.0    | 29.6           | 26.1            | 20.9            | 7.3             | 2.4             | 0.3             | 0.0             | 0.3             | 0.0       | 159.5   |
| <b>&lt; 성별 &gt;</b>  |       |         |                |                 |                 |                 |                 |                 |                 |                 |           |         |
| 남자                   | 100.0 | 8.5     | 26.0           | 30.0            | 22.8            | 9.8             | 1.9             | 0.7             | 0.3             | 0.2             | 0.0       | 174.4   |
| 여자                   | 100.0 | 48.9    | 30.5           | 13.3            | 5.6             | 1.1             | 0.7             | 0.0             | 0.0             | 0.0             | 0.0       | 83.0    |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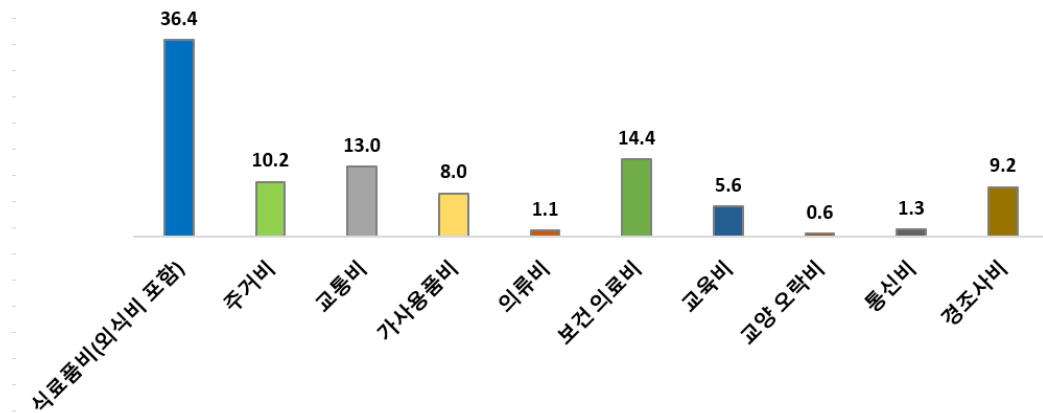
### 3-8 부담되는 생활비 항목(가구주, 1순위 응답)

#### 가장 부담되는 생활비는 「식료품비」

• 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은 「식료품비」가 36.4%로 가장 많고, 「보건의료비」(14.4%), 「교통비(유류비 포함)」(13.0%) 순으로 나타남.

- 2022년(58.2%)과 2024년(36.4%) 모두 「식료품비」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식료품비」 응답이 가장 많고, 서남부권(40.4%), 중부권(36.1%), 북부권(30.2%) 순으로 나타남.
- 남자(35.4%)와 여자(39.1%) 모두 「식료품비」 응답이 가장 많음.
- 연령별로 모든 연령대에서 「식료품비」 응답이 가장 많고, 15~29세(50.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부담되는 생활비 항목



[표 3-8] 부담되는 생활비 항목(가구주, 1순위 응답)

(단위: %)

| 구분                    | 계     | 식료품비(외식비 포함) | 주거비  | 교통비  | 가사용품비 | 의류비 | 보건의료비 | 교육비  | 교양 오락비 | 통신비 | 경조사비 | 기타  |
|-----------------------|-------|--------------|------|------|-------|-----|-------|------|--------|-----|------|-----|
| 2017년                 | 100.0 | 36.4         | 7.9  | 11.1 | 11.7  | 0.5 | 18.9  | 7.6  |        | 2.5 | 2.1  | 1.1 |
| 2019년                 | 100.0 | 37.9         | 9.8  | 3.2  | 9.4   | 1.1 | 21.8  | 5.1  | 0.7    | 2.7 | 7.0  | 1.0 |
| 2018년                 | 100.0 | 34.9         | 9.4  | 8.6  | 5.4   | 1.2 | 24.8  | 6.7  | 0.6    | 2.9 | 5.6  | 0.0 |
| 2020년                 | 100.0 | 28.6         | 7.2  | 7.4  | 10.4  | 0.6 | 22.6  | 10.3 | 0.4    | 5.5 | 7.0  |     |
| 2022년                 | 100.0 | 58.2         | 4.8  | 7.1  | 8.5   | 0.2 | 11.5  | 3.5  | 0.7    | 0.6 | 4.7  | 0.2 |
| 2024년                 | 100.0 | 36.4         | 10.2 | 13.0 | 8.0   | 1.1 | 14.4  | 5.6  | 0.6    | 1.3 | 9.2  |     |
| <b>&lt; 지역 별 &gt;</b> |       |              |      |      |       |     |       |      |        |     |      |     |
| 중부권                   | 100.0 | 36.1         | 9.3  | 18.6 | 4.4   | 0.8 | 16.8  | 3.5  | 0.3    | 2.3 | 7.9  |     |
| 북부권                   | 100.0 | 30.2         | 14.0 | 12.3 | 3.5   | 1.4 | 14.5  | 8.3  | 0.0    | 0.8 | 15.1 |     |
| 서남부권                  | 100.0 | 40.4         | 8.8  | 8.6  | 13.8  | 1.3 | 12.3  | 5.9  | 1.1    | 0.8 | 7.0  |     |
| <b>&lt; 성 별 &gt;</b>  |       |              |      |      |       |     |       |      |        |     |      |     |
| 남자                    | 100.0 | 35.4         | 12.1 | 13.8 | 8.2   | 1.1 | 10.1  | 7.2  | 0.5    | 1.7 | 9.9  |     |
| 여자                    | 100.0 | 39.1         | 5.1  | 11.1 | 7.6   | 1.3 | 25.9  | 1.3  | 0.6    | 0.3 | 7.5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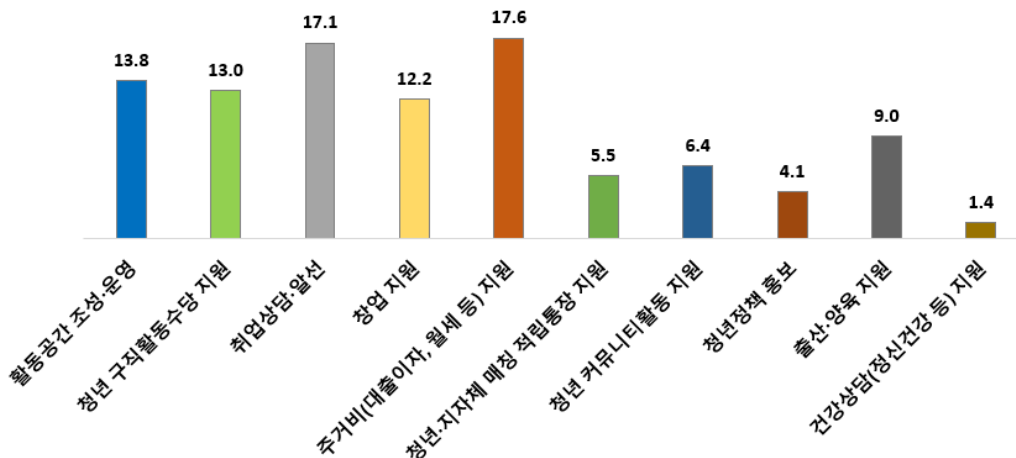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 3-9 청년지원정책

####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등) 지원」

- 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주거비지원」 응답이 17.6%로 가장 많고, 「취업 상담·알선」(17.1%), 「청년활동공간 조성·운영(청년센터 등)」(13.8%) 순으로 나타남.
- 2022년에는 「취업 상담·알선」(21.2%)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지역별로 중부권은 「청년활동공간 조성·운영」(16.7%) 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20.5%)과 서남부권(21.0%)은 「주거비 지원」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남자는 「취업 상담·알선」(17.0%) 응답이 가장 많고, 여자는 「주거비 지원」(18.5%)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 연령별로 15~29세는 「청년활동공간 조성·운영」 응답이 가장 많고, 40대와 70세 이상은 「주거비 지원」 응답이 가장 많음. 다른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취업 상담·알선」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청년지원정책



[표 3-9] 청년지원정책

(단위: %)

| 구분        | 계     | 활동공간 조성·운영(청년센터 등) |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 취업 상담·알선 | 창업 지원 |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등) 지원 | 청년·지자체 매칭 취업통장 지원 | 청년 커뮤니티활동 지원 | 청년정책 홍보 | 출산·양육 지원 | 건강상담(정신건강 등) 지원 | 기타 |
|-----------|-------|--------------------|--------------|----------|-------|--------------------|-------------------|--------------|---------|----------|-----------------|----|
| 2020년 1순위 | 100.0 | 20.6               | 20.3         | 26.3     | 9.6   | 10.6               | 1.5               | 3.5          | 1.9     | 4.2      | 1.5             |    |
| 2020년 2순위 | 100.0 | 6.4                | 8.8          | 20.7     | 13.3  | 10.3               | 9.0               | 8.0          | 7.2     | 10.3     | 6.1             |    |
| 2022년     | 100.0 | 16.5               | 14.3         | 21.2     | 12.9  | 15.9               | 4.0               | 4.3          | 2.9     | 6.3      | 1.8             |    |
| 2024년     | 100.0 | 13.8               | 13.0         | 17.1     | 12.2  | 17.6               | 5.5               | 6.4          | 4.1     | 9.0      | 1.4             |    |
| < 지역별 >   |       |                    |              |          |       |                    |                   |              |         |          |                 |    |
| 중부권       | 100.0 | 16.7               | 13.4         | 16.3     | 11.1  | 12.3               | 7.1               | 5.8          | 4.6     | 10.2     | 2.5             |    |
| 북부권       | 100.0 | 15.1               | 12.3         | 18.2     | 17.2  | 20.5               | 1.5               | 6.5          | 1.6     | 6.9      | 0.0             |    |
| 서남부권      | 100.0 | 10.0               | 12.9         | 17.3     | 9.7   | 21.0               | 6.7               | 6.9          | 5.3     | 9.0      | 1.3             |    |
| < 성별 >    |       |                    |              |          |       |                    |                   |              |         |          |                 |    |
| 남자        | 100.0 | 14.7               | 13.5         | 17.0     | 12.4  | 16.7               | 5.2               | 7.3          | 3.8     | 8.4      | 1.0             |    |
| 여자        | 100.0 | 12.8               | 12.3         | 17.3     | 12.0  | 18.5               | 5.9               | 5.3          | 4.4     | 9.6      | 1.9             |    |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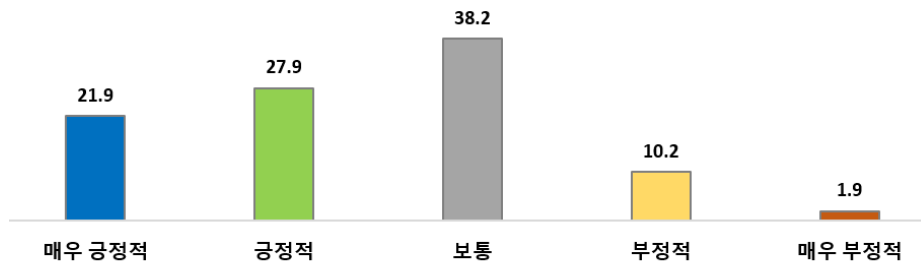
### 3-10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대한 인식

####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대한 인식 「긍정적」

• 전라남도 내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대해 「보통이다」 응답이 38.2%로 가장 많고, 「긍정적이다」(27.9%), 「매우 긍정적이다」(21.9%), 「부정적이다」(10.2%), 「매우 부정적이다」(1.9%) 순으로 나타남.

- 「부정적」(12.0%) 인식보다 「긍정적」(49.8%) 인식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 북부권은 「긍정적」(71.6%) 응답이 가장 많고, 중부권(43.2%)과 서남부권(45.0%)은 「보통」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남자(50.8%)와 여자(48.6%) 모두 「긍정적」 응답이 가장 많음.
- 연령별로 40대는 「보통」 응답이 가장 많고, 다른 나머지 연령대는 「긍정적」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대한 인식



[표 3-10]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분      | 계     | 매우 긍정적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매우 부정적 |
|---------|-------|--------|------|------|------|--------|
| 2024년   | 100.0 | 21.9   | 27.9 | 38.2 | 10.2 | 1.9    |
| < 지역별 > |       |        |      |      |      |        |
| 중부권     | 100.0 | 15.7   | 25.7 | 43.2 | 13.0 | 2.5    |
| 북부권     | 100.0 | 40.6   | 31.0 | 20.5 | 7.8  | 0.0    |
| 서남부권    | 100.0 | 15.7   | 27.9 | 45.0 | 8.9  | 2.6    |
| < 성별 >  |       |        |      |      |      |        |
| 남자      | 100.0 | 22.4   | 28.5 | 37.3 | 10.4 | 1.5    |
| 여자      | 100.0 | 21.4   | 27.2 | 39.2 | 9.9  | 2.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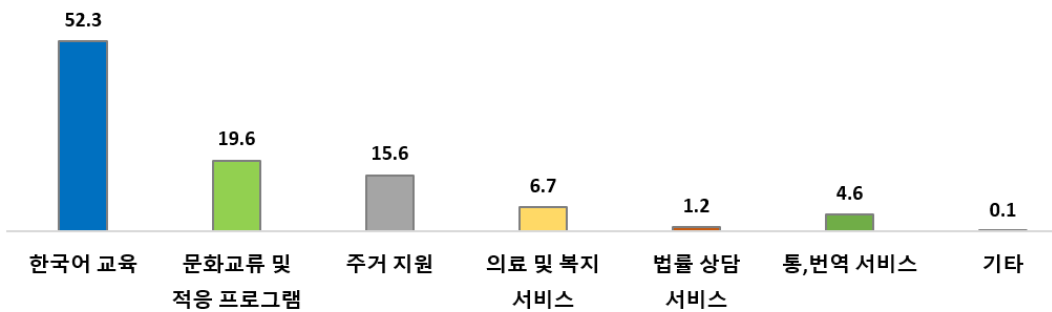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 3-11 외국인 노동자 적응을 위한 지원 정책

#### 「한국어 교육」

- 외국인 노동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으로 「한국어 교육」 응답이 52.3%로 가장 많고, 「문화 교류 및 적응 프로그램」(19.6%), 「주거 지원」(15.6%)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한국어 교육」 응답이 가장 많고, 중부권(56.4%), 서남부권(51.1%), 북부권(48.4%) 순으로 나타남.
- 남자(49.0%)와 여자(56.2%) 모두 「한국어 교육」 응답이 가장 많음.
- 연령별로 모든 연령대에서 「한국어 교육」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외국인 노동자 적응을 위한 지원 정책



[표 3-11] 외국인 노동자 적응을 위한 지원 정책

(단위: %)

| 구 분      | 계     | 한국어 교육 | 문화교류 및 적응 프로그램 | 주거 지원 | 의료 및 복지 서비스 | 법률 상담 서비스 | 통,번역 서비스 | 기타  |
|----------|-------|--------|----------------|-------|-------------|-----------|----------|-----|
| 2024년    | 100.0 | 52.3   | 19.6           | 15.6  | 6.7         | 1.2       | 4.6      | 0.1 |
| < 지역 별 > |       |        |                |       |             |           |          |     |
| 중 부 권    | 100.0 | 56.4   | 9.8            | 19.0  | 7.9         | 0.0       | 6.7      | 0.2 |
| 북 부 권    | 100.0 | 48.4   | 13.1           | 22.7  | 10.0        | 1.3       | 4.4      | 0.0 |
| 서 남 부 권  | 100.0 | 51.1   | 33.6           | 7.2   | 3.2         | 2.2       | 2.7      | 0.0 |
| < 성 별 >  |       |        |                |       |             |           |          |     |
| 남 자      | 100.0 | 49.0   | 22.9           | 14.9  | 6.8         | 1.2       | 5.0      | 0.1 |
| 여 자      | 100.0 | 56.2   | 15.6           | 16.3  | 6.5         | 1.2       | 4.1      | 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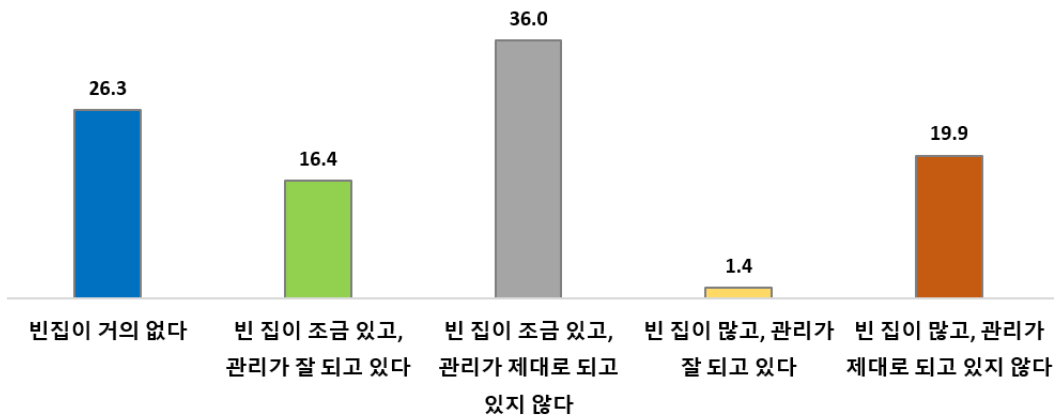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 3-12 집 주변에 빈 집의 수와 방치 정도

#### 집 주변에 「빈집이 있다」 73.7%

- 집 주변에 빈집의 수와 방치 정도는 「빈 집이 조금 있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36.0%) 응답이 가장 많고, 「빈집이 거의 없다」(26.3%), 「빈집이 많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19.9%) 순으로 나타남.
- 「빈집이 있다」는 응답은 2022년 59.1%에서 2024년 73.7%로 증가함.
- 「빈집이 있다」는 응답(73.7%) 중에서 「조금 있다」는 71.0%, 「많이 있다」는 29.0%를 차지하며, 「관리가 잘 되고 있다」 24.2%,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75.8%로 분석됨.
- 지역별로 집 주변에 「빈집이 있다」는 응답은 서남부권(84.6%), 중부권(69.8%), 북부권(63.5%) 순으로 나타남.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응답은 서남부권(92.0%), 중부권(67.4%), 북부권(57.9%) 순으로 나타남.

집 주변에 빈 집의 수와 방치 정도



[표 3-12] 집 주변에 빈 집의 수와 방치 정도

(단위: %)

| 구 분      | 계     | 빈집이 거의 없다 | 빈 집이 조금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 | 빈 집이 조금 있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 빈 집이 많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 | 빈 집이 많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
|----------|-------|-----------|-------------------------|------------------------------|----------------------|---------------------------|
| 2022년    | 100.0 | 40.9      | 5.6                     | 28.2                         | 1.2                  | 24.0                      |
| 2024년    | 100.0 | 26.3      | 16.4                    | 36.0                         | 1.4                  | 19.9                      |
| < 지역 별 > |       |           |                         |                              |                      |                           |
| 중 부 권    | 100.0 | 30.2      | 21.9                    | 27.6                         | 0.8                  | 19.4                      |
| 북 부 권    | 100.0 | 36.5      | 23.9                    | 20.3                         | 2.8                  | 16.5                      |
| 서 남 부 권  | 100.0 | 15.4      | 5.7                     | 55.0                         | 1.1                  | 22.7                      |
| < 성 별 >  |       |           |                         |                              |                      |                           |
| 남 자      | 100.0 | 26.1      | 14.7                    | 37.6                         | 1.5                  | 20.1                      |
| 여 자      | 100.0 | 26.5      | 18.4                    | 34.0                         | 1.3                  | 19.7                      |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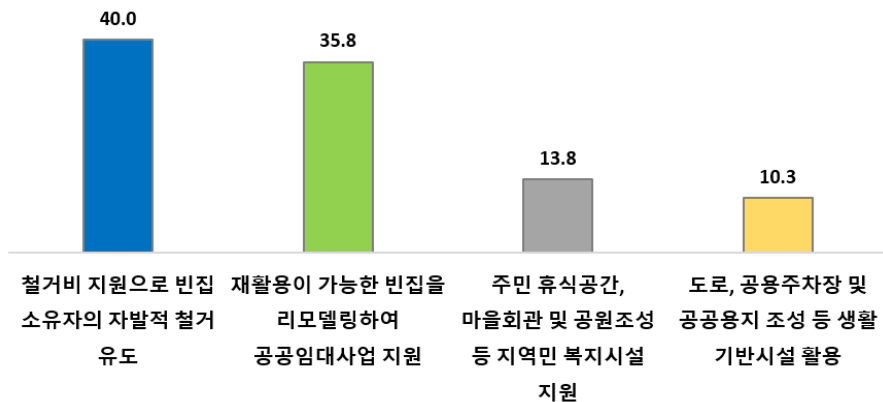
### 3-13 빈 집의 활용방안

#### 「철거비 지원으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유도」

• 집 주변의 빈집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철거비 지원으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유도」(40.0%) 응답이 가장 많고, 「재활용이 가능한 빈집을 새단장하여 공공임대사업 지원」(35.8%), 「주민 휴식공간(쉼터), 마을회관 및 공원조성 등 지역민 복지시설 지원」(13.8%) 순으로 나타남.

- 2022년(57.8%)과 2024년(40.0%) 모두 「철거비 지원으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유도」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 중부권은 「철거비 지원으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유도」(52.8%) 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45.9%)과 서남부권(38.3%)은 「재활용이 가능한 빈집을 새단장하여 공공임대사업 지원」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 남자는 「철거비 지원으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유도」(42.1%), 여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빈집을 새단장하여 공공임대사업 지원」(38.9%)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빈 집의 활용방안



[표 3-13] 빈 집의 활용방안

(단위: %)

| 구 분      | 계     | 철거비 지원으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유도 | 재활용이 가능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임대사업 지원 | 주민 휴식공간, 마을회관 및 공원조성 등 지역민 복지시설 지원 | 도로, 공용주차장 및 공공용지 조성 등 생활 기반시설 활용 | 기타  |
|----------|-------|----------------------------|-------------------------------|------------------------------------|----------------------------------|-----|
| 2022년    | 100.0 | 57.8                       | 29.3                          | 8.4                                | 4.4                              | 0.1 |
| 2024년    | 100.0 | 40.0                       | 35.8                          | 13.8                               | 10.3                             |     |
| < 지역 별 > |       |                            |                               |                                    |                                  |     |
| 중 부 권    | 100.0 | 52.8                       | 26.9                          | 9.3                                | 11.1                             |     |
| 북 부 권    | 100.0 | 24.4                       | 45.9                          | 14.7                               | 15.1                             |     |
| 서 남 부 권  | 100.0 | 37.3                       | 38.3                          | 17.3                               | 7.2                              |     |
| < 성 별 >  |       |                            |                               |                                    |                                  |     |
| 남 자      | 100.0 | 42.1                       | 33.2                          | 12.7                               | 12.0                             |     |
| 여 자      | 100.0 | 37.6                       | 38.9                          | 15.2                               | 8.3                              |     |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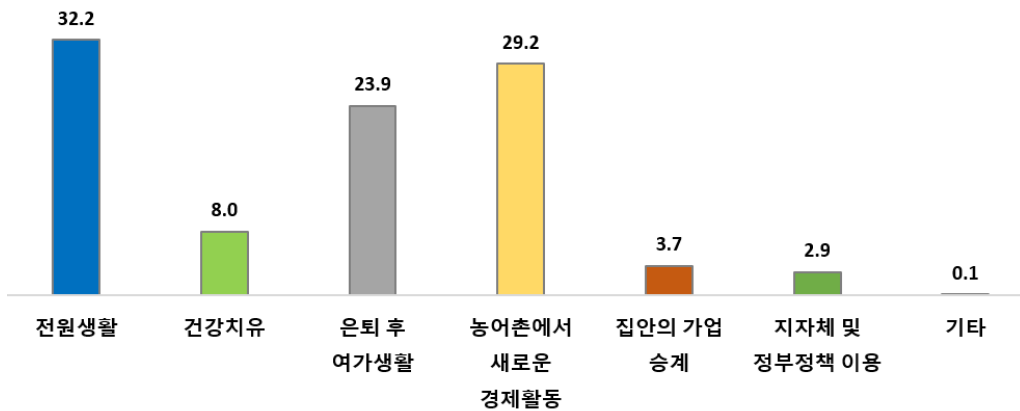
### 3-14 귀농어, 귀촌을 하는 가장 큰 이유

#### 「전원생활」

• 귀농어·귀촌을 하는 이유로 「전원생활」 응답이 32.2%로 가장 많고, 「농어촌에서 새로운 경제활동」(29.2%), 「은퇴 후 여가생활」(23.9%) 순으로 나타남.

- 2022년에는 「농어촌에서 새로운 경제활동」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지역별로 중부권(44.8%)과 북부권(33.7%)은 「전원생활」 응답이 가장 많고, 서남부권은 「농어촌에서 새로운 경제활동」(44.7%)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 남자(31.8%)와 여자(32.7%) 모두 「전원생활」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40대와 50대는 「농어촌에서 새로운 경제활동」 응답이 가장 많고, 다른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전원생활」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귀농어, 귀촌을 하는 가장 큰 이유



[표 3-14] 귀농어, 귀촌을 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 구분      | 계     | 전원생활 | 건강치유 | 은퇴 후 여가생활 | 농어촌에서 새로운 경제활동 | 집안의 가업 승계 | 지자체 및 정부정책 이용 | 기타  |
|---------|-------|------|------|-----------|----------------|-----------|---------------|-----|
| 2022년   | 100.0 | 25.2 | 8.7  | 27.6      | 30.7           | 3.7       | 4.1           |     |
| 2024년   | 100.0 | 32.2 | 8.0  | 23.9      | 29.2           | 3.7       | 2.9           | 0.1 |
| < 지역별 > |       |      |      |           |                |           |               |     |
| 중부권     | 100.0 | 44.8 | 7.4  | 23.8      | 20.2           | 1.5       | 2.2           | 0.2 |
| 북부권     | 100.0 | 33.7 | 8.4  | 30.2      | 19.8           | 2.7       | 5.2           | 0.0 |
| 서남부권    | 100.0 | 18.5 | 8.5  | 19.6      | 44.7           | 6.6       | 2.1           | 0.0 |
| < 성별 >  |       |      |      |           |                |           |               |     |
| 남자      | 100.0 | 31.8 | 5.9  | 25.2      | 29.8           | 4.1       | 3.2           | 0.0 |
| 여자      | 100.0 | 32.7 | 10.5 | 22.2      | 28.4           | 3.3       | 2.6           | 0.1 |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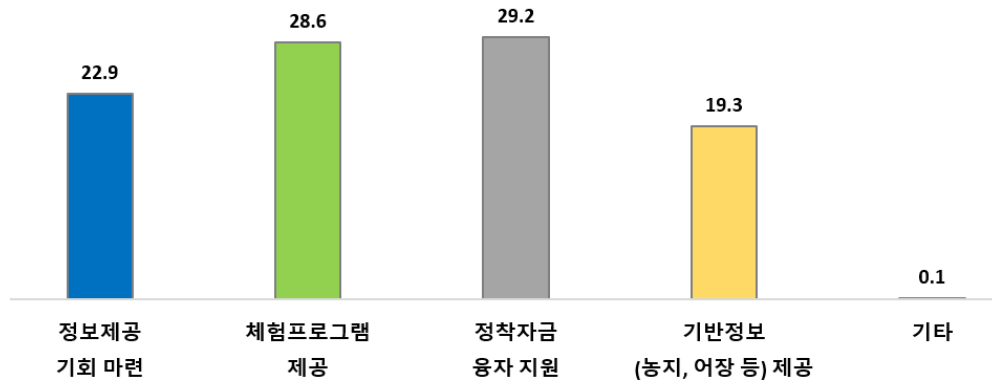


### 3-15 귀농어, 귀촌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

#### 「귀농어·귀촌인에 대한 정착자금 용자지원」

- 귀농어·귀촌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정착자금 용자지원」(29.2%) 응답이 가장 많고, 「관심 분야에 대한 사전 체험프로그램 제공」(28.6%), 「귀농어·귀촌에 관한 정보제공 기회(박람회 등) 마련」(22.9%) 순으로 나타남.
- 2022년(41.0%)과 2024년(29.2%) 모두 「정착자금 용자지원」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 중부권은 「정보제공 기회 마련」(32.8%), 북부권은 「사전 체험프로그램 제공」(29.6%) 응답이 가장 많고, 서남부권은 「정착자금 용자지원」(38.6%)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남자는 「정착자금 용자지원」(29.8%), 여자는 「사전 체험프로그램 제공」 응답이 가장 많음.
- 연령별로 15~29세는 「정보제공 기회 마련」 응답이 가장 많고, 30대와 70세 이상은 「사전 체험프로그램 제공」 응답이 가장 많음. 다른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정착자금 용자지원」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 직업별로 농림어업 종사자는 「정착자금 용자지원」(31.2%), 「사전 체험프로그램 제공」(27.8%), 「정보제공 기회 마련」(24.9%) 순으로 나타남.

귀농어, 귀촌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



[표 3-15] 귀농어, 귀촌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

(단위: %)

| 구분      | 계     | 정보제공 기회 마련 | 체험프로그램 제공 | 정착자금 용자 지원 | 기반정보 (농지, 어장 등) 제공 | 기타  |
|---------|-------|------------|-----------|------------|--------------------|-----|
| 2022년   | 100.0 | 12.3       | 31.8      | 41.0       | 14.8               | 0.0 |
| 2024년   | 100.0 | 22.9       | 28.6      | 29.2       | 19.3               | 0.1 |
| < 지역별 > |       |            |           |            |                    |     |
| 중부권     | 100.0 | 32.8       | 27.9      | 20.4       | 18.6               | 0.2 |
| 북부권     | 100.0 | 20.0       | 29.6      | 28.5       | 21.9               | 0.0 |
| 서남부권    | 100.0 | 14.6       | 28.6      | 38.6       | 18.2               | 0.0 |
| < 성별 >  |       |            |           |            |                    |     |
| 남자      | 100.0 | 21.3       | 27.1      | 29.8       | 21.8               | 0.0 |
| 여자      | 100.0 | 24.6       | 30.4      | 28.5       | 16.3               | 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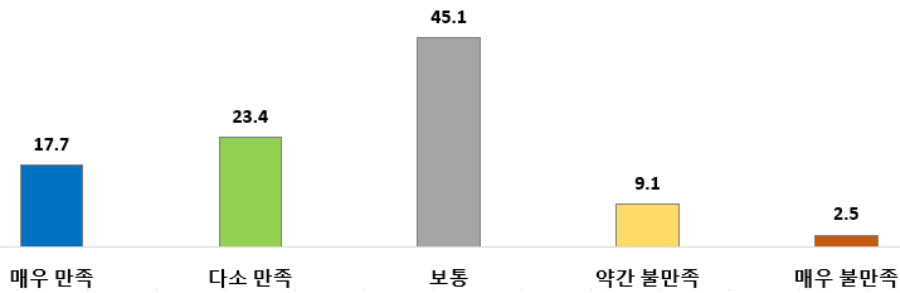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 3-16 쓰레기 처리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 생활폐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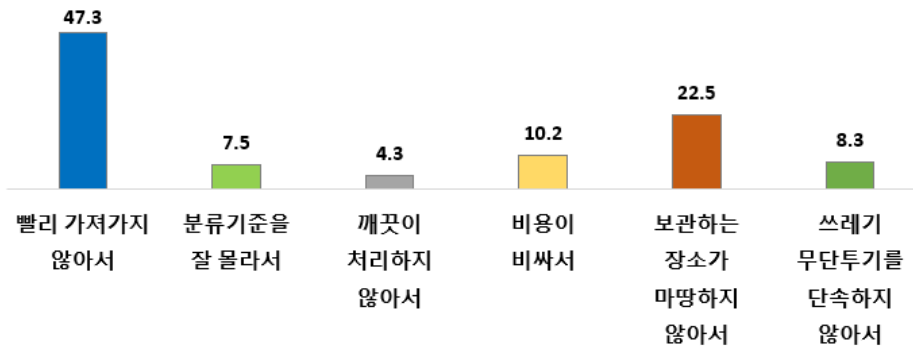
#### 생활폐기물 처리 「보통」

- 전라남도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 「보통」 응답이 45.1%로 가장 많고, 불만족 이유는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47.3%) 응답이 가장 많음.
- 「보통이다」(45.1%) 응답이 가장 많고, 「불만족」(11.6%)보다 「만족」(41.1%) 응답이 더 많음.
- 2022년(47.8%)과 2024년(47.3%) 모두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쓰레기 처리 만족도 - 생활폐기물



쓰레기 처리 불만족 이유 - 생활폐기물



[표 3-16] 쓰레기 처리 만족도 - 생활폐기물

(단위: %)

| 구 분       | 계     | 매우 만족 | 다소 만족 | 보통   | 약간 불만족 | 매우 불만족 | 평균 만족도 | 해당없음 |
|-----------|-------|-------|-------|------|--------|--------|--------|------|
| 2 0 2 0 년 | 100.0 | 17.7  | 30.3  | 42.2 | 7.4    | 1.3    | 3.6    | 1.0  |
| 2 0 2 2 년 | 100.0 | 22.0  | 25.4  | 43.6 | 4.2    | 2.0    | 3.6    | 2.8  |
| 2 0 2 4 년 | 100.0 | 17.7  | 23.4  | 45.1 | 9.1    | 2.5    | 3.5    | 2.2  |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표 3-17] 쓰레기 처리 불만족 이유 - 생활폐기물

(단위: %)

| 구 분       | 계     |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 | 분류기준을 잘 몰라서 | 깨끗이 처리하지 않아서 | 비용이 비싸서 |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지 않아서 | 기타 |
|-----------|-------|-------------|-------------|--------------|---------|-------------------|--------------------|----|
| 2 0 2 0 년 | 100.0 | 27.4        | 10.1        | 13.6         | 8.4     | 18.3              | 22.2               |    |
| 2 0 2 2 년 | 100.0 | 47.8        | 2.1         | 3.1          | 2.5     | 42.4              | 2.1                |    |
| 2 0 2 4 년 | 100.0 | 47.3        | 7.5         | 4.3          | 10.2    | 22.5              | 8.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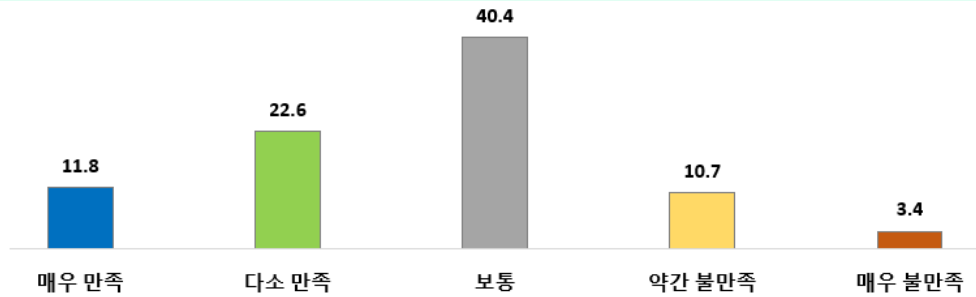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 3-17 쓰레기 처리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 음식물쓰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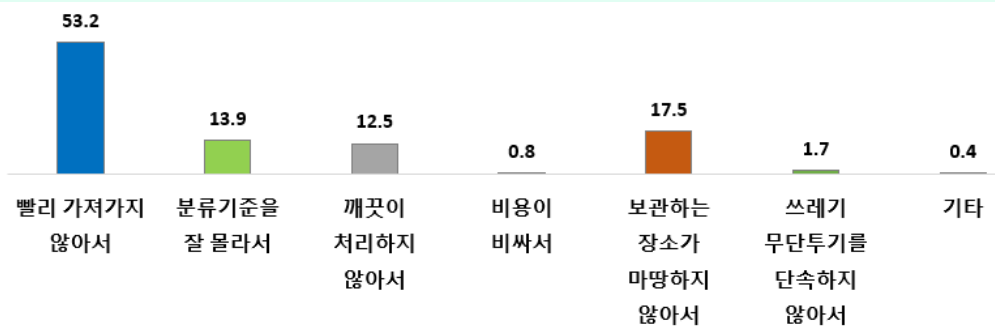
#### 음식물 쓰레기 처리 「보통」

- 전라남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 「보통」 응답이 40.4%로 가장 많고, 불만족 이유는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53.2%) 응답이 가장 많음.
- 「보통이다」(40.4%) 응답이 가장 많고, 「불만족」(14.2%)보다 「만족」(34.4%) 응답이 더 많음.
- 2022년에는 불만족 이유로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63.7%) 응답이 가장 많았음.

쓰레기 처리 만족도 - 음식물쓰레기



쓰레기 처리 불만족 이유 - 음식물쓰레기



[표 3-18] 쓰레기 처리 만족도 - 음식물쓰레기

(단위: %)

| 구 분       | 계     | 매우 만족 | 다소 만족 | 보통   | 약간 불만족 | 매우 불만족 | 평균 만족도 | 해당없음 |
|-----------|-------|-------|-------|------|--------|--------|--------|------|
| 2 0 2 0 년 | 100.0 | 18.1  | 29.8  | 42.7 | 6.7    | 1.5    | 3.6    | 1.2  |
| 2 0 2 2 년 | 100.0 | 19.9  | 20.3  | 41.5 | 8.6    | 2.6    | 3.5    | 7.1  |
| 2 0 2 4 년 | 100.0 | 11.8  | 22.6  | 40.4 | 10.7   | 3.4    | 3.3    | 11.0 |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표 3-19] 쓰레기 처리 불만족 이유 - 음식물쓰레기

(단위: %)

| 구 분       | 계     |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 | 분류기준을 잘 몰라서 | 깨끗이 처리하지 않아서 | 비용이 비싸서 |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지 않아서 | 기타  |
|-----------|-------|-------------|-------------|--------------|---------|-------------------|--------------------|-----|
| 2 0 2 0 년 | 100.0 | 55.8        | 6.4         | 15.4         | 0.0     | 13.1              | 9.3                |     |
| 2 0 2 2 년 | 100.0 | 19.9        | 2.0         | 9.7          | 0.0     | 63.7              | 3.2                | 1.5 |
| 2 0 2 4 년 | 100.0 | 53.2        | 13.9        | 12.5         | 0.8     | 17.5              | 1.7                | 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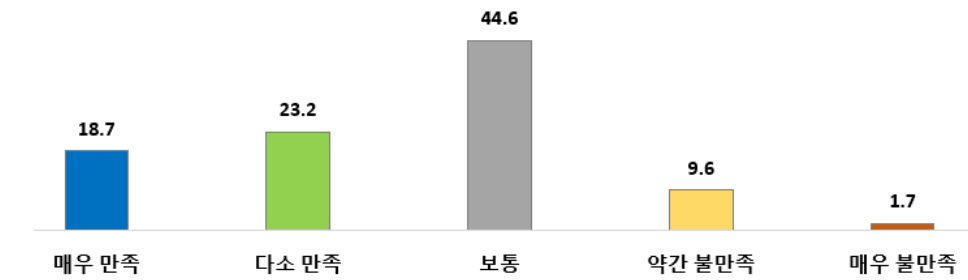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 3-18 쓰레기 처리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 재활용쓰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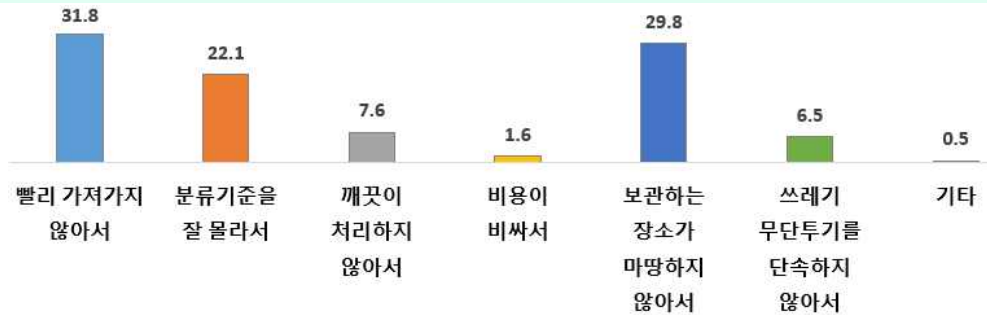
#### 재활용 쓰레기 처리 「보통」

- 전라남도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대해 「보통」 응답이 44.6%로 가장 많고, 불만족 이유는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31.8%) 응답이 가장 많음.
- 「보통이다」(44.6%) 응답이 가장 많고, 「불만족」(11.4%)보다 「만족」(41.8%) 응답이 더 많음.
- 2022년에는 불만족 이유로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58.4%) 응답이 가장 많았음.

쓰레기 처리 만족도 - 재활용쓰레기



쓰레기 처리 불만족 이유 - 재활용쓰레기



[표 3-20] 쓰레기 처리 만족도 - 재활용쓰레기

(단위: %)

| 구 분   | 계     | 매우 만족 | 다소 만족 | 보통   | 약간 불만족 | 매우 불만족 | 평균 만족도 | 해당없음 |
|-------|-------|-------|-------|------|--------|--------|--------|------|
| 2020년 | 100.0 | 17.9  | 34.4  | 39.1 | 6.1    | 1.4    | 3.6    | 1.2  |
| 2022년 | 100.0 | 21.7  | 30.2  | 39.2 | 4.3    | 1.7    | 3.7    | 2.8  |
| 2024년 | 100.0 | 18.7  | 23.2  | 44.6 | 9.6    | 1.7    | 3.5    | 2.2  |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표 3-21] 쓰레기 처리 불만족 이유 - 재활용쓰레기

(단위: %)

| 구 분   | 계     |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 | 분류기준을 잘 몰라서 | 깨끗이 처리하지 않아서 | 비용이 비싸서 |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지 않아서 | 기타  |
|-------|-------|-------------|-------------|--------------|---------|-------------------|--------------------|-----|
| 2020년 | 100.0 | 29.2        | 14.7        | 11.2         | 1.6     | 27.1              | 16.1               |     |
| 2022년 | 100.0 | 25.0        | 5.3         | 7.0          | 0.0     | 58.4              | 3.7                | 0.7 |
| 2024년 | 100.0 | 31.8        | 22.1        | 7.6          | 1.6     | 29.8              | 6.5                | 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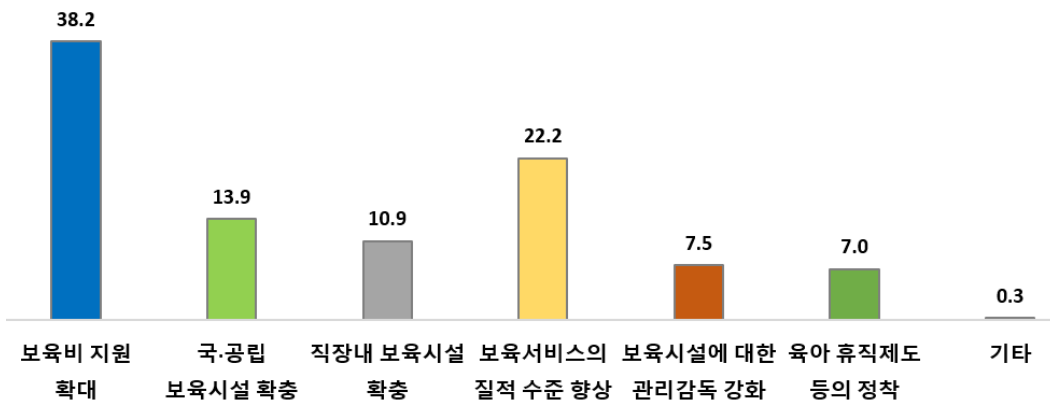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 3-19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 「보육비 지원 확대」

- 아동의 보육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보육비 지원 확대」 응답이 38.2%로 가장 많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2.2%),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13.9%) 순으로 나타남.
- 2022년에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32.6%)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보육비 지원 확대」 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46.3%), 중부권(38.0%), 서남부권(32.9%) 순으로 나타남.
- 남자(36.7%)와 여자(40.0%) 모두 「보육비 지원 확대」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모든 연령대에서 「보육비 지원 확대」 응답이 가장 많고, 70세 이상(43.0%)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표 3-22]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단위: %)

| 구분      | 계     | 보육비 지원 확대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직장내 보육시설 확충 |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육아 휴직제도 등의 정착 | 기타  |
|---------|-------|-----------|--------------|-------------|-----------------|------------------|---------------|-----|
| 2018년   | 100.0 | 40.8      | 12.9         | 8.4         | 20.6            | 13.0             | 4.3           |     |
| 2020년   | 100.0 | 29.8      | 15.5         | 7.7         | 30.0            | 9.9              | 7.0           | 0.1 |
| 2022년   | 100.0 | 29.0      | 12.8         | 9.9         | 32.6            | 11.2             | 4.4           |     |
| 2024년   | 100.0 | 38.2      | 13.9         | 10.9        | 22.2            | 7.5              | 7.0           | 0.3 |
| < 지역별 > |       |           |              |             |                 |                  |               |     |
| 중부권     | 100.0 | 38.0      | 14.6         | 9.6         | 22.7            | 5.7              | 8.6           | 0.7 |
| 북부권     | 100.0 | 46.3      | 9.3          | 6.1         | 24.7            | 6.4              | 7.3           | 0.0 |
| 서남부권    | 100.0 | 32.9      | 16.3         | 15.4        | 20.1            | 10.2             | 5.2           | 0.0 |
| < 성별 >  |       |           |              |             |                 |                  |               |     |
| 남자      | 100.0 | 36.7      | 13.5         | 11.1        | 23.5            | 8.4              | 6.8           | 0.0 |
| 여자      | 100.0 | 40.0      | 14.3         | 10.7        | 20.7            | 6.5              | 7.3           | 0.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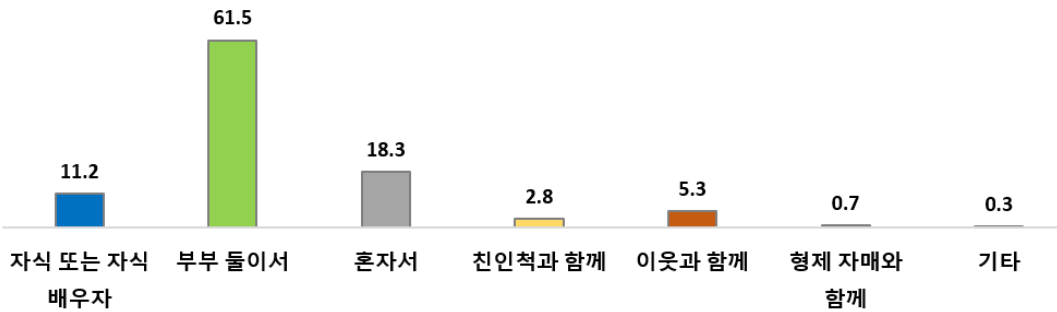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 3-20 선호하는 노후 동거형태

#### 노후 생활은 「부부 둘이서」

- 노후의 생활 형태는 「부부 둘이서」 응답이 61.5%로 가장 많고, 「혼자서」(18.3%), 「자식 또는 자식의 배우자와 함께」(11.2%)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부부 둘이서」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남자(65.8%)와 여자(56.5%) 모두 「부부 둘이서」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모든 연령대에서 「부부 둘이서」 응답이 가장 많고, 60대(72.7%)가 가장 많음.
- 혼인상태별 미혼 응답자는 「부부 둘이서」 응답이 43.4%로 가장 많고, 「혼자서」 응답은 24.8%임. 배우자 있는 응답자는 「부부 둘이서」 응답이 80.3%로 나타남.

선호하는 노후 동거형태



[표 3-23] 선호하는 노후 동거형태

(단위: %)

| 구분      | 계     | 자식 또는 자식 배우자 | 부부 둘이서 | 혼자서  | 친인척과 함께 | 이웃과 함께 | 형제 자매와 함께 | 기타  |
|---------|-------|--------------|--------|------|---------|--------|-----------|-----|
| 2024년   | 100.0 | 11.2         | 61.5   | 18.3 | 2.8     | 5.3    | 0.7       | 0.3 |
| < 지역별 > |       |              |        |      |         |        |           |     |
| 중부권     | 100.0 | 6.0          | 66.6   | 21.7 | 1.7     | 3.3    | 0.0       | 0.7 |
| 북부권     | 100.0 | 22.5         | 39.5   | 16.5 | 8.4     | 11.4   | 1.7       | 0.0 |
| 서남부권    | 100.0 | 8.7          | 71.3   | 16.1 | 0.0     | 3.1    | 0.8       | 0.0 |
| < 성별 >  |       |              |        |      |         |        |           |     |
| 남자      | 100.0 | 11.0         | 65.8   | 12.9 | 2.2     | 7.2    | 0.9       | 0.0 |
| 여자      | 100.0 | 11.3         | 56.5   | 24.7 | 3.4     | 3.0    | 0.5       | 0.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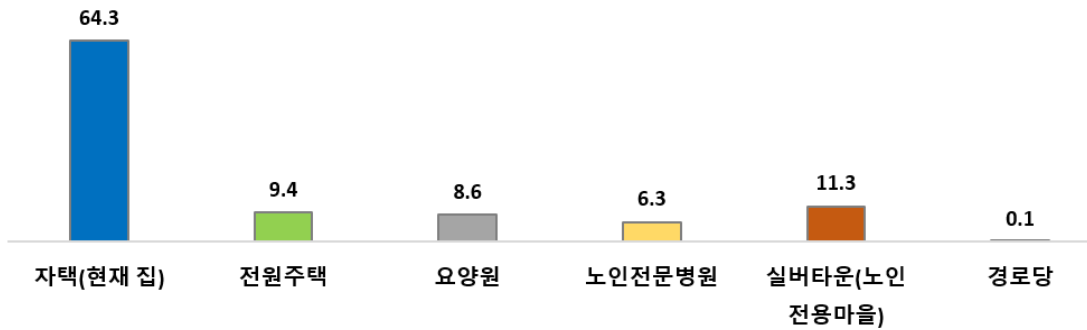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 3-21 요양서비스 선호 장소

#### 요양서비스 선호 장소는 「자택(현재 집)」

- 노후에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받고 싶은 장소로 「자택(현재 집)」 응답이 64.3%로 가장 많고, 「실버타운(노인 전용마을)」(11.3%), 「전원주택」(9.4%)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자택」 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69.8%), 서남부권(69.3%), 중부권(57.2%) 순으로 나타남.
- 남자(62.3%)와 여자(66.7%) 모두 「자택」 응답이 가장 많음.
- 모든 연령대에서 「자택」 응답이 가장 많고, 60대(74.5%)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노인 연령대인 65세 이상은 「자택」(71.5%), 「요양원」(10.2%), 「노인전문병원」(8.1%) 순으로 분석됨.

요양서비스 선호 장소



[표 3-24] 요양서비스 선호 장소

(단위: %)

| 구분      | 계     | 자택(현재 집) | 전원주택 | 요양원  | 노인전문병원 | 실버타운(노인 전용마을) | 경로당 |
|---------|-------|----------|------|------|--------|---------------|-----|
| 2024년   | 100.0 | 64.3     | 9.4  | 8.6  | 6.3    | 11.3          | 0.1 |
| < 지역별 > |       |          |      |      |        |               |     |
| 중부권     | 100.0 | 57.2     | 8.3  | 12.9 | 8.0    | 13.6          | 0.0 |
| 북부권     | 100.0 | 69.8     | 6.7  | 8.8  | 1.1    | 13.7          | 0.0 |
| 서남부권    | 100.0 | 69.3     | 11.7 | 4.1  | 6.7    | 8.1           | 0.2 |
| < 성별 >  |       |          |      |      |        |               |     |
| 남자      | 100.0 | 62.3     | 12.7 | 9.1  | 4.2    | 11.7          | 0.0 |
| 여자      | 100.0 | 66.7     | 5.6  | 8.1  | 8.6    | 10.9          | 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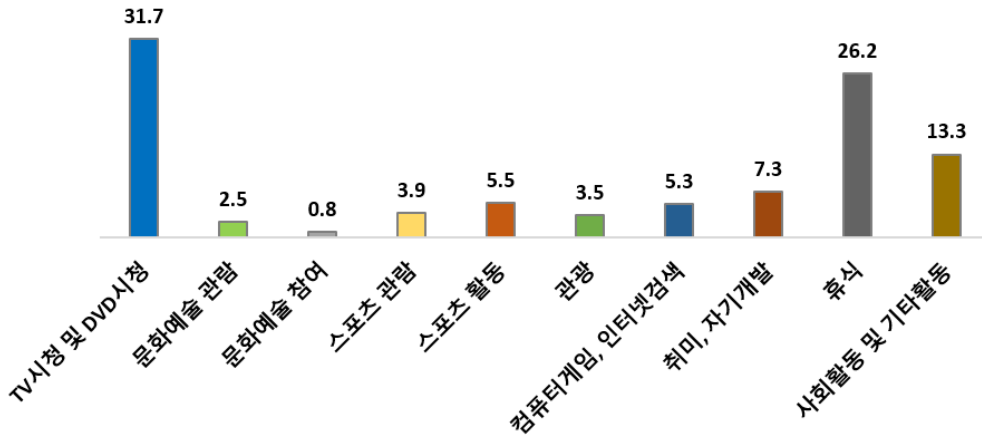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 3-22 여가활동 -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복수응답)

#### 주로 「TV 시청」

-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으로 「TV시청(유선방송, IPTV, DVD 시청 등)」 응답이 31.7%로 가장 많고, 「휴식(수면, 사우나 등)」(26.2%), 「사회활동 및 기타 활동(봉사활동, 종교활동, 사교활동 등)」(13.3%) 순으로 나타남.
- 2022년(36.7%)과 2024년(31.7%) 모두 「TV 시청」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TV 시청」 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33.6%), 서남부권(31.8%), 중부권(30.5%) 순으로 나타남.
- 남자(30.6%)와 여자(33.0%) 모두 「TV 시청」 응답이 가장 많음.
- 연령별로 30대는 「휴식」 응답이 가장 많고, 다른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TV 시청」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



[표 3-25] 여가활동 -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복수응답)

(단위: %)

| 구분        | 계     | TV시청 및 DVD시청 | 문화예술 관람 | 문화예술 참여 | 스포츠 관람 | 스포츠 활동 | 관광  |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 취미 자기개발 | 휴식   | 사회활동 및 기타활동 | 기타  |
|-----------|-------|--------------|---------|---------|--------|--------|-----|---------------|---------|------|-------------|-----|
| 2018년 1순위 | 100.0 | 60.4         | 6.5     | 0.1     | 1.1    | 4.0    | 0.4 | 4.4           | 2.4     | 13.9 | 6.7         | 0.0 |
| 2018년 2순위 | 100.0 | 14.4         | 7.0     | 2.3     | 3.9    | 6.6    | 2.8 | 6.6           | 4.8     | 44.7 | 6.8         | 0.1 |
| 2018년 3순위 | 100.0 | 13.7         | 3.3     | 2.4     | 6.6    | 10.3   | 2.9 | 5.5           | 8.8     | 26.3 | 20.0        | 0.2 |
| 2020년     | 100.0 | 36.5         | 1.7     | 0.2     | 3.0    | 4.8    | 1.5 | 6.3           | 2.8     | 31.0 | 12.0        | 0.1 |
| 2022년     | 100.0 | 36.7         | 2.9     | 1.0     | 3.4    | 5.0    | 2.2 | 5.6           | 3.4     | 26.5 | 13.3        | 0.0 |
| 2024년     | 100.0 | 31.7         | 2.5     | 0.8     | 3.9    | 5.5    | 3.5 | 5.3           | 7.3     | 26.2 | 13.3        | 0.0 |
| < 지역 별 >  |       |              |         |         |        |        |     |               |         |      |             |     |
| 중부권       | 100.0 | 30.5         | 2.0     | 1.0     | 1.4    | 3.3    | 1.4 | 3.3           | 6.0     | 29.6 | 21.4        | 0.1 |
| 북부권       | 100.0 | 33.6         | 1.5     | 0.1     | 9.5    | 6.2    | 3.6 | 5.9           | 10.3    | 23.1 | 6.1         | 0.0 |
| 서남부권      | 100.0 | 31.8         | 3.6     | 1.3     | 2.4    | 7.4    | 5.5 | 6.8           | 6.2     | 24.0 | 11.0        | 0.0 |
| < 성 별 >   |       |              |         |         |        |        |     |               |         |      |             |     |
| 남자        | 100.0 | 30.6         | 2.2     | 0.7     | 5.3    | 6.9    | 3.5 | 7.1           | 6.7     | 25.8 | 11.1        | 0.1 |
| 여자        | 100.0 | 33.0         | 2.7     | 1.0     | 2.1    | 3.8    | 3.6 | 3.3           | 7.9     | 26.8 | 15.8        | 0.0 |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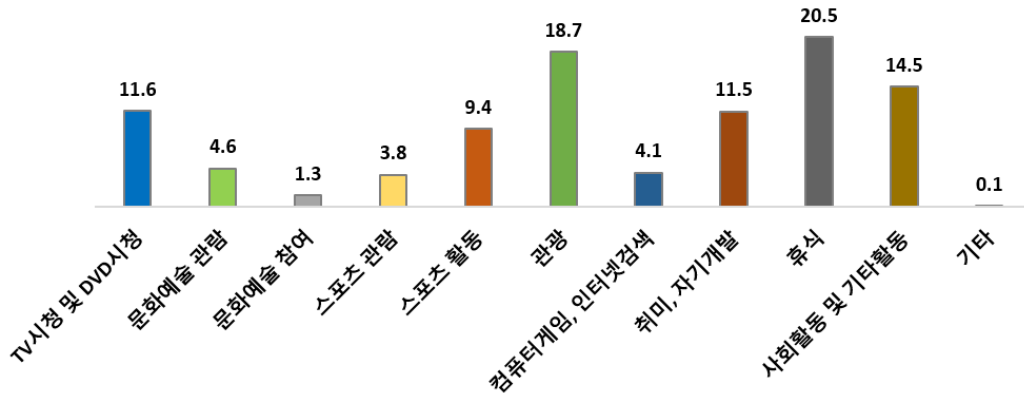
### 3-23 여가활동 -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복수응답)

#### 「휴식」

• 앞으로 여유가 생긴다면 가장 많이 하고 싶은 여가 활동으로 「휴식(수면, 사우나 등)」 응답이 20.5%로 가장 많고, 「관광(국내/해외여행, 캠핑 등)」(18.7%), 「사회활동 및 기타 활동(봉사활동, 종교활동, 사교활동 등)」(16.2%) 순으로 나타남.

- 2022년에는 「관광」(24.7%)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지역별로 중부권은 「휴식」(23.7%) 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22.3%)과 서남부권(22.8%)은 「관광」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남자는 「관광」(19.4%), 여자는 「휴식」(23.7%) 응답이 가장 많음.
- 연령별로 15~29세는 「컴퓨터게임, 인터넷 검색 등」 응답이 가장 많고, 30대는 「취미, 자기개발 활동」 응답이 가장 많음. 40대와 50대는 「관광」, 60대와 70세 이상은 「휴식」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표 3-26] 여가활동 -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복수응답)

(단위: %)

| 구분        | 계     | TV시청<br>및<br>DVD시청 | 문화예술<br>관람 | 문화예술<br>참여 | 스포츠<br>관람 | 스포츠<br>활동 | 관광   | 컴퓨터<br>게임<br>인터넷<br>검색 | 취미<br>자기개<br>발 | 휴식   | 사회활<br>동<br>기타활<br>동 | 기타  |
|-----------|-------|--------------------|------------|------------|-----------|-----------|------|------------------------|----------------|------|----------------------|-----|
| 2018년 1순위 | 100.0 | 15.7               | 10.3       | 2.7        | 4.6       | 12.0      | 32.4 | 3.2                    | 5.2            | 7.0  | 6.8                  | 0.2 |
| 2018년 2순위 | 100.0 | 5.1                | 9.4        | 3.7        | 3.8       | 15.7      | 19.3 | 2.6                    | 11.8           | 22.9 | 5.6                  | 0.0 |
| 2018년 3순위 | 100.0 | 9.0                | 11.9       | 4.4        | 3.6       | 9.6       | 11.8 | 2.6                    | 15.4           | 15.6 | 15.9                 | 0.2 |
| 2020년     | 100.0 | 3.0                | 12.8       | 3.5        | 4.3       | 15.3      | 27.9 | 3.9                    | 12.1           | 8.5  | 8.7                  |     |
| 2022년     | 100.0 | 6.3                | 8.9        | 6.2        | 3.4       | 10.0      | 24.7 | 2.8                    | 10.4           | 11.0 | 16.1                 | 0.2 |
| 2024년     | 100.0 | 11.6               | 4.6        | 1.3        | 3.8       | 9.4       | 18.7 | 4.1                    | 11.5           | 20.5 | 14.5                 | 0.1 |
| < 지역별 >   |       |                    |            |            |           |           |      |                        |                |      |                      |     |
| 중부권       | 100.0 | 12.6               | 5.9        | 1.1        | 2.5       | 9.1       | 12.6 | 3.5                    | 9.5            | 23.7 | 19.3                 | 0.0 |
| 북부권       | 100.0 | 13.9               | 1.0        | 0.5        | 4.8       | 8.2       | 22.3 | 6.9                    | 11.5           | 20.5 | 10.3                 | 0.0 |
| 서남부권      | 100.0 | 8.8                | 5.9        | 2.2        | 4.7       | 10.7      | 22.8 | 2.6                    | 13.6           | 15.7 | 12.8                 | 0.2 |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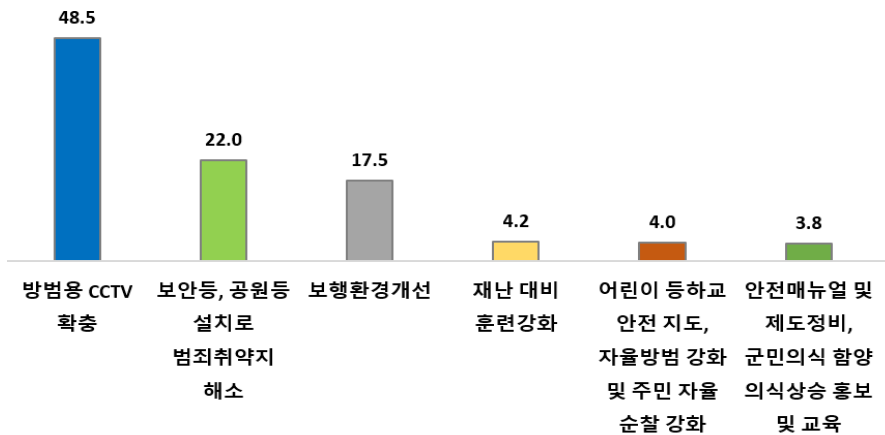
### 3-24 안전한 지역만들기 위한 방안

#### 「방범용 CCTV 확충」

• 거주하는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방범용 CCTV 확충」 응답이 48.5%로 가장 많고, 「보안등, 공원등 설치로 범죄 취약지역 해소」(22.0%), 「보행환경개선(보도블럭, 방지턱, 안전펜스 설치 등)」(17.5%) 순으로 나타남.

- 2022년(56.3%)과 2024년(48.5%) 모두 「방범용 CCTV 확충」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방범용 CCTV 확충」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방범용 CCTV 확충」 응답은 중부권(66.1%), 서남부권(39.4%), 북부권(35.5%) 순으로 분석됨.
- 남자(47.3%)와 여자(49.9%) 모두 「방범용 CCTV 확충」 응답이 가장 많음.
- 모든 연령대에서 「방범용 CCTV 확충」 응답이 가장 많음.

#### 안전한 지역만들기 위한 방안



[표 3-27] 안전한 지역만들기 위한 방안

(단위: %)

| 구분      | 계     | 방범용 CCTV 확충 | 보안등, 공원등 설치로 범죄취약지역 해소 | 보행환경개선 | 각종 재난을 대비한 훈련강화 | 어린이 등하교 안전 지도 및 주민자율 순찰강화 | 매뉴얼 및 제도정비, 의식상승 홍보 및 교육 | 기타 |
|---------|-------|-------------|------------------------|--------|-----------------|---------------------------|--------------------------|----|
| 2018년   | 100.0 | 42.3        | 18.6                   | 15.0   | 6.9             | 5.3                       | 12.0                     |    |
| 2020년   | 100.0 | 40.9        | 17.7                   | 17.3   | 6.4             | 5.7                       | 11.9                     |    |
| 2022년   | 100.0 | 56.3        | 20.5                   | 14.6   | 3.0             | 2.9                       | 2.8                      |    |
| 2024년   | 100.0 | 48.5        | 22.0                   | 17.5   | 4.2             | 4.0                       | 3.8                      |    |
| < 지역별 > |       |             |                        |        |                 |                           |                          |    |
| 중부권     | 100.0 | 66.1        | 18.5                   | 8.8    | 2.3             | 1.7                       | 2.6                      |    |
| 북부권     | 100.0 | 35.5        | 15.2                   | 22.7   | 10.7            | 11.9                      | 4.0                      |    |
| 서남부권    | 100.0 | 39.4        | 30.1                   | 22.8   | 1.7             | 1.1                       | 4.9                      |    |
| < 성별 >  |       |             |                        |        |                 |                           |                          |    |
| 남자      | 100.0 | 47.3        | 24.2                   | 16.3   | 4.2             | 4.2                       | 3.8                      |    |
| 여자      | 100.0 | 49.9        | 19.4                   | 18.8   | 4.2             | 3.9                       | 3.8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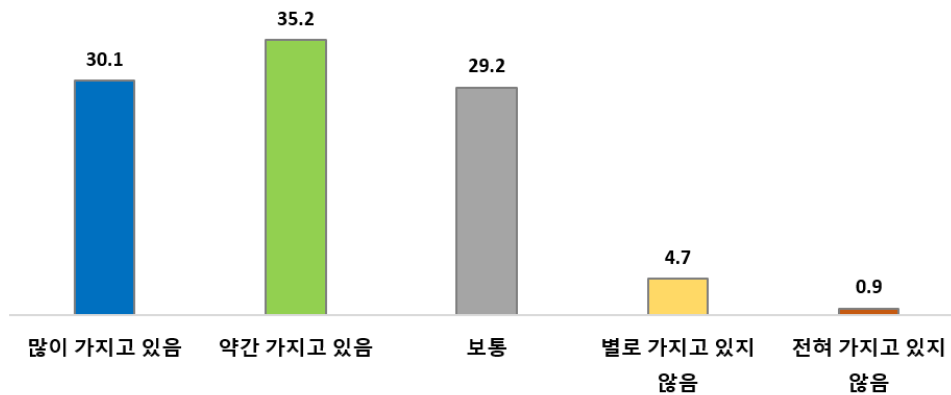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 3-25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

#### 지역민으로서 소속감과 자부심

-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이 「약간 가지고 있음」 응답이 35.2%로 가장 많고, 「많이 가지고 있음」(30.1%), 「보통」(29.2%),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음」(4.7%),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음」(0.9%) 순으로 나타남.
- 「가지고 있음」 응답은 2022년 55.3%에서 2024년 65.3%로 증가함.
- 「가지고 있지 않음」(5.6%) 응답보다 「가지고 있음」(65.3%)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가지고 있음」 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80.2%), 중부권(61.6%), 서남부권(58.9%) 순으로 나타남.
- 남자(65.1%)와 여자(65.4%) 모두 「가지고 있음」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 연령별로 15~29세와 30대는 「보통이다」 응답이 가장 많고, 다른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가지고 있음」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가지고 있다」 응답은 60대(74.0%)가 가장 많음.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



[표 3-28]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

(단위: %)

| 구분      | 계     | 많이 가지고 있음 | 약간 가지고 있음 | 보통   |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음 |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음 |
|---------|-------|-----------|-----------|------|--------------|--------------|
| 2016년   | 100.0 | 14.4      | 39.0      | 40.2 | 5.1          | 1.3          |
| 2017년   | 100.0 | 17.9      | 39.0      | 37.8 | 4.0          | 1.3          |
| 2018년   | 100.0 | 26.0      | 40.3      | 31.4 | 1.4          | 0.9          |
| 2019년   | 100.0 | 28.2      | 33.3      | 33.2 | 4.9          | 0.4          |
| 2020년   | 100.0 | 29.5      | 42.1      | 25.6 | 2.4          | 0.3          |
| 2022년   | 100.0 | 23.1      | 32.1      | 35.5 | 4.4          | 4.8          |
| 2024년   | 100.0 | 30.1      | 35.2      | 29.2 | 4.7          | 0.9          |
| < 지역별 > |       |           |           |      |              |              |
| 중부권     | 100.0 | 27.2      | 34.4      | 30.6 | 5.5          | 2.3          |
| 북부권     | 100.0 | 41.8      | 38.3      | 17.4 | 2.4          | 0.0          |
| 서남부권    | 100.0 | 25.0      | 33.9      | 35.7 | 5.4          | 0.0          |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